

전남도, 지식정보문화산업 청년일자리 늘린다

10개 기업과 투자협약 청년일자리 183개 창출

전남도가 신규 창업하거나 전남으로 이전한 지식정보문화 10개 기업과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협약을 체결한 나주, 목포, 순천에 들어선 10개 기업이 2026년까지 총 129억원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 183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에 둥지를 튼 ㈜온소프트, ㈜PTW 코리아, ㈜노보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소프트, ㈜비알이디, ㈜의성 등 6개 기업은 협약에 따라 61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18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통해 해당 분야 지역 특화 비즈니스 모델 정착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엑스플랜트, ㈜에이오코리아, ㈜크레퍼 등 3개 기업은 목포에 53억원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59개를 창출한다.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모바일 게임 서비스,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로컬엔컴퍼니는 순천에 15억원을 투

자해 지역에 특화된 영상·문화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 내달 1일 개막하는 순천 국제제정원박람회 기간에 관련 콘텐츠 기획과 상품 제작 유통에 나선다.

전남도는 앞서 민선7기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식정보문화산업 분야 보조금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총 14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했다.

이중 76개 기업이 투자 실현을 통해

19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뒀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식정보문화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청년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며 “앞으로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식정보문화기업도 고민 없이 전남을 선택하도록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순천·담양·해남·영암에 30억 투입 시설하우스 등 생산·유통시설 구축

전남도가 소비자에게 친환경 과일과 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4곳에 30억원을 지원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조성 대상 지역은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순천시, 담양군, 해남군, 영암군이다.

친환경 과채류 육묘장, 시설하우스, 공동선별장, 저온저장시설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한 곳당 사업비를 최대 10억원 지원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은 도, 시·군비 70%, 자부담 30%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생산

·가공, 유통 시설, 장비의 현대화 지원으로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성 향상 등 친환경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각 사업 대상지는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적기에 사업을 완공해 달라”고 말했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벼와 비교해 친환경 인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일과 채소 품목을 대상으로 육묘 등 생산단계부터 유통과 가공까지 시설 현대화와 일손을 덜어주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31곳에 110억원을 지원해 친환경 과수·채소 부문 생산·유통·가공 기반 확충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화순서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협약·포럼

전남도가 푸드테크를 활용한 전남 기능성(맞춤형 특수식) 간편식(HMR)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푸드테크 협의회(회장 이기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푸드테크 산업 발전 전략 포럼을 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29일 화순 화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협약 및 포럼을 진행하며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 식품 관련 업체, 공직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다.

협약은 기능성 간편식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푸드테크 정책 수립과 공동대응·협력 △푸드테크 연구·학술 정보 및 개발기술 교류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 푸드테크 기업 육성 및 유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2021년 농식품부 ‘기능성 HMR 실

증·실용화센터(2021~2024) 구축’ 사업 전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전남 친환경 농산품과 천연물을 소재로 기능성 원료와 제형을 개발하고 기능성 HMR 효능 실증 플랫폼 구축과 실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포럼은 ‘푸드테크 산업 전망’에 대한 이기원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센터’ 추진계획에 대한 연윤열 식품산업연구원센터장의 설명 ‘기능성 가정간편식 산업동향’에 대한 한국식품연구원 김병근 단장이 발표한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도 풍부한 농산물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맞춤형 기능성 가정간편식을 개발해 메디-케어 푸드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재 기자

광주시, 요기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146억 확보

광산 복룡동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광주시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 피해를 입어 온 광산구 요기지구의 배수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요기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 지구 선정에 이어 올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 때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50ha 이상 저지대의 배수로를 정비하는가 하면 배수장·배수문 등을 설치,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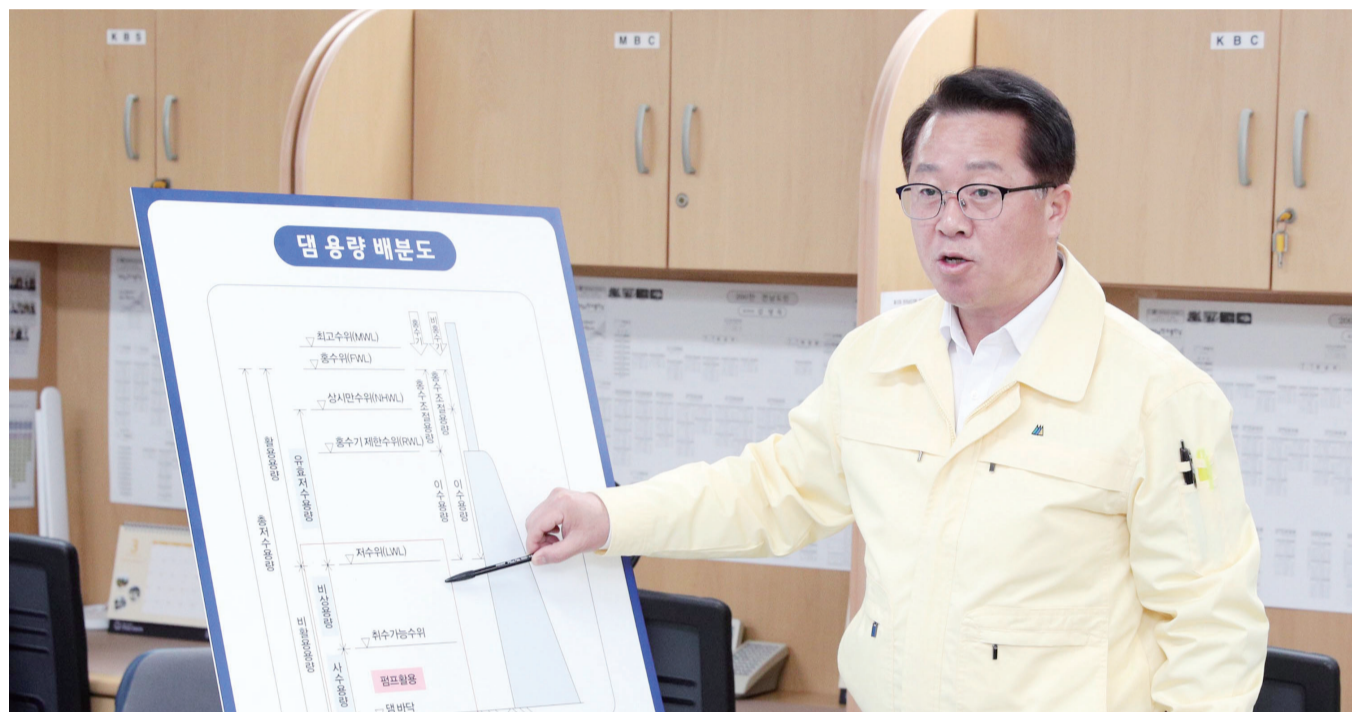
광주시는 요기지구 개선 사업의 절실함

을 적극 설득, 1년 만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사업비 146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 올해 설계용역에 들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연차 별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한편 배수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광산구 복룡동 등 3개동 일대 총 156ha에 달하는 농경지가 혜택을 받는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남택승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요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마치면 농경지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영농환경이 개선돼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재 기자



가뭄대책 이렇게...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전남도 가뭄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해남 방산리 마한 수장 고분서 ‘강력한 해상 세력’ 유물 발굴

고분 3기 확인... 가야 토기 등 한강·충청 고분 축조 방식 확인

고대 서남해안 연안항로를 관광했던 마한의 수장묘를 발굴·조사한 결과 강력한 해상세력이었음을 추정할 만한 유물이 발굴됐다.

가야계 토기와 한강·충청 지역 고분 축조 방식 등이 나타나 이들 지역과도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재)마한문화연구원 연구진이 추진한 고대마한의 수장묘인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 고분군’의 발굴·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오는 4월까지 이어지는 발굴·조사에서 더 많은 유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 고분군’은 탐진만으로 진입하는 남해안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산 정상부인 해발 50~58m에 자리하고 있어 탁월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해남 방산리 마한 수장 고분군(독수리봉 고분군). 전남도 제공

발굴조사에 확인된 고분은 총 3기로 고분 중심에는 목곽묘가 중심무덤으로 사용됐다. 3기 중 2호분 주변에선 전용 옹관 또는 일상용 토기를 이용한 배장 옹관묘와 동근고리칼, 철도끼, 짧은목단지, 철낫 등 유물이 발굴됐다.

동근고리칼과 같은 철기유물은 마한의

수장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다. 여기에 가야계 토기, 한강·충청 지역의 고분 축조 방식도 확인됐다.

주변 관방유적 등을 고려했을 때 고분을 축조했던 집단은 주변 집단과 활발히 교류했던 강력한 해상세력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상을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이 5~6세기 서남해안 일대에 다양한 고분을 축조했다는 고고학적 자료 가치가 있다.

또 배장 옹관묘와 매납유구의 발굴로 마한 고분문화와 지역 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마한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활용과 고대문화의 문화적·역사적 가치 제고를 위해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사·발굴 조사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 마한유적 사적 지정 확대를 위해 발굴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전남도, 으뜸인재 80명 선발... 연간 최대 600만원 지원

내달 28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남도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새천년 으뜸인재를 발굴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제4회 으뜸인재 발굴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래 리더와 예체능 리더, 2개 분야로 나눠 중·고·대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80명을 선발하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4월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전남

에 있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광주광역시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중·고교로 유학을 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부모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남에 있는 초·중학교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경우여야 한다.

또 서류심사 합격 인원을 1.5배수에서 2배수로 증원해 더 많은 학생에게 면접 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합격자는 6월께 발표한다.

전남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실기면접을 거쳐 선발된 ‘새천년 으뜸인재’

에게 재능개발비를 학교 졸업시까지 연간 300만~600만원을 지원한다.

장광열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지역 인재가 미래를 이끌 멋진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전남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매년 선발을 통해 총 331명의 새천년 으뜸인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22)로 문의하면 된다.

최황지 기자